

# 십자가를 품은 사랑

유아영  
테레사

(성모병원 원목수녀)

여의도 윤중로의 아름다운 벚꽃과 더불어 새싹을 띄우는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도 나의 마음 한구석에 곱게 자리잡고 있는 한 분이 떠오른다.

또 부활대축일에 성가대의 아름다운 성가를 들으니 그분과 함께 했던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나의 뇌리를 쓰치며 함께 한 순간 순간들을 회상해 본다. 그분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몇 년동안 투병생활하시면서도 늘 기쁘게 생활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병실의 다른 환자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다. 항암치료로 머리가 다 빠지고 심한 기침과 구토로 고통을 호소하시면서도 타인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잊지 않으시고 인자한 스님을 만난 것처럼 늘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다. 지금도 그분이 누워 계셨던 그 병실을 들어서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겨 주실것만 같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물해 주시어 건강할 때 본당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봉사하였다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는 아프니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 보다 목이 아프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이 마음의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노래에 자신이

없었던 나는 그분께 미사 때 성가봉사(선창)를 부탁드렸다. 그분은 목이 아파 항상 노란 스카프를 목에 매고 수줍은 어린아이처럼 미사에 참여하여 너무나 기쁘게 성가를 선창해 주시어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은혜롭고 성스러운 미사가 되는데 한 몫을 하셨으며 하느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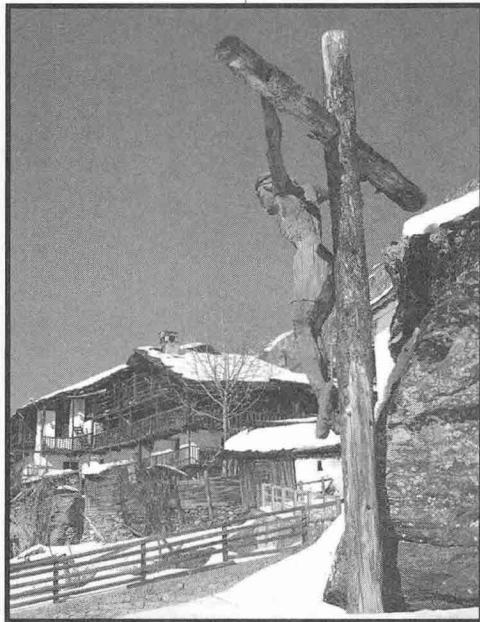
그러나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자 환자는 기도하시며 하느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죽을 때 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청했는데 목소리를 제일 먼저 가져 가셨다며 조금은 서운해 하시면서도 하느님의 뜻이 있기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한다며 잘 받아들이신다고 하셨다. 그분은 남편과 사별하여 세 명의 딸이 있는데 큰딸은 미혼이고 둘째딸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며 셋째 딸은 대학을 다니며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자취 생활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곁에는 항상 큰 딸이 지극 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있었으며 두 분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환자는 성가봉사뿐 아니라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안타까워 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대모를 원하는 환자에게 대모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 얼마전까지 매일 봉성체 하시며 주님께 편안히 가시길 간절히 원하셨다.

어느날인가는 장례를 조출하게 치루고 싶다 하시더니 다음날 걱정이 되셨는지 “수녀님! 나 예복 갖춰 입지 않았다고 하느님께 쫓겨나면 어떡하죠?” 하시며 걱정하셨다. 나는 환자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의 예복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갖춰 입으셨으니 하느님도 기뻐하실거예요” 했더니 빙그레 웃으셨다. 평소 때 좋아하시던 성가가 218장 이라고 하시기에 장례 때 꼭 불러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매님과의 만남을 감사드리며 환자의 뺨에 나의 볼을 맞대고는 “사랑해요”하며 속삭였더니 환자는 나 죽으면 꼭 218장 성가를 불러달라 하시며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하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수도자인 나 보다도 더 주님나라에 갈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면서 마음 아팠다.

임종을 며칠 앞두고 나는 성가단원 4명과 함께 병실에 찾아가 환자를 위해 성가를 들려 드렸다. 환자는 고통중에서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지금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며 행복해하셨다. 한 곡(성

체성가)이 끝나자 환자는 어렵게 검지손가락을 펴서 한곡 더 들려달라고 청하였다. 성가단원들은 마음을 다해 성모님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때의 성가는 내가 들어도 천상의 소리였다. 환자와 성가단원들은 한번의 만남이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성가단원들은 성가를 마친후 환자의 손을 잡아드리며 하느님께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며칠 후 환자는 하느님 나라로 떠나셨다.



나는 환자가 돌아가신 후 약속대로 장례미사 때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성가 218장을 수녀님들과 함께 불러드리고, 큰 딸과 상의해서 호스피스 봉사자님이 해주신 수의를 입으시고 곱고 편안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하얀 소복 차려입고 하느님 앞에 가신 망자의 모습은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편안해 보였다.

나는 이 환자가 하느님 나라에 가시는 여정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깊은 신앙체험과 영적 독서, 영성체, 고해성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는 그분은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하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분을 뵈면서 나의 신앙과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분과의 만남 이후로 성가단원들의 합창소리는 나에게 더 의미있게 다가왔고, 그 소리는 바로 환자의 부활 찬미소리로 들려왔다. 비록 하늘나라에 가서서 우리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더 큰 선물을 주고 가신 환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분들이 위안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면 끝까지 성가봉사를 하고 싶었던 그분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환자의 목소리를 거두어 가신 하느님은 더 많은 분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고 계시지 않는가?

얼마전에는 아마투스 합창단원으로 활동중인 직원에게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좋은 몫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기쁘게 수락해 주었다. 지금 병원 주일미사 시간에는 아마투스 합창단원으로 있는 직원과 친구들이 함께 봉사를 해 주고 있다. 성가단원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 본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리라 생각한다.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겪듯이 하느님 나라로 옮겨가는 또 한번의 고통을 아파하기보다 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에

초점을 맞추듯 영원한 생명에 믿음을 둔 우리들은 죽음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영.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분히 죽음 준비를 하셨던 그분을 만난 호스피스 봉사자, 의사, 간호사, 원목자, 환자들, 가족들 모두가 그분이 지니셨던 기쁨과 평화를 함께 맛보셨으리라 믿는다.

양심과 신앙생활을 보여주신 그분의 따뜻함이 하느님의 손길과 함께 자녀들에게 함께 하길 기도 드린다. 우리를 위해서도 천상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도해 주실 자매님!

언젠가는 우리들도 가야 할 본향에서 만나요. 하느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딸들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깊은 신